

물러나는 이동걸 산은회장... 다른 국책은행장 거취 '관심'

윤 행장, 연 순이익 최초 2조 돌파
디스커버리펀드 영향 완주 미지수
방 행장 임기 5개월 남아 완주 예상
정통 경제 관료 출신 긍정적 작용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의를 밝히면서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수장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에 산업은행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 9월까지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지만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지난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를 통해 공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은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정부 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정부 초기 산은 회장으로 임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명된 뒤 연임했다.

산은 수장이 떠나면서 다른 국책은행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과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종원 행장 역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다. 2020년 1월 취임 당시 노조를 중심으로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다.

윤 행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일까지다.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았다.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적만 놓고 보면 역대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디스커버리펀드 부실 판매 사건으로 신뢰가 하락해 완주를 하지 못할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전체 판매액 중 914억 원이 환매 정지됐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은 새정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로 수장이 바뀐 사례가 없

었다"고 말했다.

방문규 은행장은 임기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 행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말까지로 새 정부가 인선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취임 이후 4~5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의 인사가 마무리된 후 추후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의 자진사퇴로 다른 국책은행장의 진퇴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카카오뱅크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 긍정적"

윤호영 대표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
하반기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여수신 상품 개발과 운영을 해오면서 자금세탁·보안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주요 자산으로 여기는 만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뱅 자체 상품이 아니어도 제휴를 통해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험하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 개인사업자 대출과 수신 상품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카카오뱅크

윤 대표는 "4분기부터 개인사업자 수신과 대출 상품을 출시해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을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UI)을 준비하고 있고 지점방문이 쉽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100% 비대면으로 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1분기 순이익이 6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4억1400만

원으로 63.8% 늘었으며 매출액은 3384억3900만원으로 5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다.

순이자마진(NIM)은 2.22%로 지난해 4분기(2.13%)보다 상승했다. 신용대출에서 중신용자 대출의 이자 구성비가 늘어나면서 NIM이 증가했다. 현재 상품별 대출금리는 전월세는 2%대 중반, 고신용은 4%대, 중저신용은 6~7%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1분기 말 기준 카뱅 고객은 1861만명으로 1분기 동안 62만명의 고객이 새롭게 가입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은 1분기 동안 2269억원 늘면서 2조69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말 기준으로 1100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 말 기준 수신 잔액은 33조4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저원가성 예금(세이프박스 포함) 비중이 59.7% 수준이다. 여신 잔액은 25조9651억원이다.

/이승용 기자

우리금융, 산림청과 ESG경영 업무협약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 기여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에서 산림청과 '탄소중립 활동과 ESG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및 ESG 활동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산림 분야 국제협력 및 활동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산림총회에서 체결됐다.

세계산림총회는 산림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산림행사로 1962년 제1차 이탈리아 총회 이후 6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한국산림청 공동 주관으로 5일간 열린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과 협력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활용한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REDD+) 등 국내외 산림사업의 민관 협력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국내외 산림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홍보 등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ESG경영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의 첫 걸음으로 하반기에 올해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숲길 복구를 지원해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인 산림을 통해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신한은행, KT와 AI 기반 화상상담 추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실시간으로 업무처리

신한은행은 지난 2일 KT와 올레tv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화상상담 서비스 '홈랜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홈랜치'는 KT 올레tv 내 신한은행 채널에서 '기가지니'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TV를 통해 은행 직원과 실시간으로 금융 상담 및 간편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내 집안의 영업점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1월 신한은행이 디지털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KT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협력 아이템이 구체화된 사례 중 하나다.

신한은행과 KT는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고객경험 개선 및 협업 모델 확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홈랜치' 상용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홈랜치'는 은행 영업점 업무 시간 이후에도 올레tv를 통해 간편 응대 및 상담 예약을 제공하기 위해 AI 은행원을 적용하고 이체·상품 가입 등 실제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신한 솔(SOL)과 서비스연동하는 등 고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을 위해 화면을 단순한 이용자 환경(UI)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이고 KT의 높은 보안 기술을 적용해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발 예정이다.



신한은행 전필환 부행장(왼쪽)이 KT 신수정 부문장과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최대 IPTV 가입자를 보유한 KT와 힘을 합쳐 선보일 '홈랜치' 서비스로 고객에게 집에서 편안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여러 분야의 기술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한은 "세계식량가격 상승세 장기화 가능성"

물가 상황 점검회의 개최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3일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환석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4.8%)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4월 106.85(2020=100)로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심화된 가운데 전쟁 여파 등으로 곡물을 중심으로 세계식량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총재보는 "에너지가격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이 상승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러 제재 확대 가능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며 "휘발유, 식료품, 외식 등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커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만큼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격 추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용 기자